

		보도설명자료		
		배포일시	2021. 5. 6. (목) 총 1매	
담당 부서	공공주택지원과	담 당 자	·과장 정수호, 사무관 서형우 ·☎ (044) 201-4530, 4533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금년 목표 3.8만호 중 3만호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며, 신축매입 특성 상, 6월 이후 계약체결이 본격화될 전망

◆ “공급 차질 없다?... 계약 2,300가구 뿐”(매일경제, '21.5.6)

- 정부, 민간신청 많아 문제없다지만 신축매입 1.4천호, 공공전세 0.9천호 등 계약은 목표량 대비 절반도 못채워

□ 통상 사업자는 LH 등의 **사업공고**(연초, 가이드라인 제시 등)를 바탕으로 사업부지 물색, 주택 설계 등을 거쳐 **2~3월부터 사업을 신청***하며,

* 특히, 금년은 2.4대책으로 인한 사업자의 관망세, 공공전세·비주택리모델링 등 신규 사업의 도입으로 예년보다 다소 늦은 3월 중순부터 신청 집중

○ **사업신청 이후 약정계약까지** 약정심의(1개월), 매입가 협상 등(2개월)의 절차가 진행되어 **약 3개월***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.

* ①사업신청 후 심의까지 약 1개월(서류 보완 등), ②심의통과 후 설계·구조 협의 약 1개월, ③감정평가 및 매입가격 협상 약 1개월 등

※ 통상 1분기 계약체결 건은 연 목표 5% 내외로 연말까지 목표달성 완료 → 올해도 유사

□ 이러한 신축 매입약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, **6월 이후 본격적으로 계약이 체결될** 전망으로, 신청건에 대해서는 약정심의·매입가 협상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**당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** 예정입니다.

○ 특히, 사업자는 신축매입약정 방식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인지 (4.30, 사업설명회)하고 있으며, 세제혜택·특약보증(사업비 90%까지 대출보증) 등 **인센티브가 4~5월부터 본격 시행됨**에 따라 사업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